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과 교회의 사명

삿6:11-18

지난주 3박 4일 일본 북해도 여행, 3년 만의 해외여행, 아내가 나이가 들면서 노을, 눈이 보고 싶다.

코로나 핑계,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다녀옴

인천 공항 제1청사, 화장실 등 그동안 레노베이션 전 세계 최고 공항이 빈말이 아니다.(*)

휴대품 검사 출국 심사, 입국 심사, 말 그대로 최고 수준

3시간 반 비행, 삿포로 도착, 3박 4일 동안 여기 저기 다니면서 느낀 것: 생활수준 면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2022년 12월 16일 통계, 국민 1인당 GDP. 일본을 앞선다, 영원히

조선일보 2022년 12월 16일, 日연구소 “올해 대만, 내년 한국이 일본 1인당 총생산 GDP 추월”(*)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4일 발표한 ‘2035년까지의 아시아 경제 예측’에서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는 대만에, 내년에는 한국에 각각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올해 1인당 GDP가 3만3636달러(약 4384만원)에 그쳐, 대만(3만3791달러)에 밀린 뒤, 내년에도 3만3334달러로 소폭 감소해 한국(3만4505달러)에 추월당한다는 예측이다.

(*) 한국은 2024년에는 대만까지 역전해 3국 중 최고 1인당 GDP를 기록한 뒤, 2025년에 4만 달러, 2029년에 5만 달러, 2035년에 6만 달러를 연이어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나 중동 산유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GDP 국가로 올라선다는 것이다. 과거에 연구를 하면서 20년 전쯤에 일본을 방문하였다. 일본, 물가도 비싸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그것은 사실이였다.

그런데 20년 뒤 다시 일본 방문, 물론 북해도지만 공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자동차, 거리, 물건, 물가 등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1월 2-3일. 한국의 국가 경쟁력 혹은 영향력은 6위 (*)

미국의 순위조사 전문매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NW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가장 강력한 (Most Powerful) 국가’에서 한국이 미국·중국·러시아·독일·영국에 이어 6위에 올랐다. 프랑스(7위)·일본(8위)·아랍에미리트연합(9위)·이스라엘(10위)을 제쳤다. 전년도 조사에서는 일본이 6위, 한국이 8위였는데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한다. 경제적 영향력, 수출, 정치적 영향력, 국제동맹, 군사력, 지도자 등 6개 지표가 동원됐으며, 전 세계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7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한국은 ‘국력’의 6가지 평가 요소 중 경제적 영향력(79.8점)과 수출(84.0점), 군사력(79.1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도자(22.5점)와 정치적 영향력(48.6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으로 평가받는다. 그 결과 최고의 국가 평가에서는 일본 6위, 한국 20위

미개한 정치, 지도자의 부재

나는 공과대학 교수, 공산품에 관심이 많다. 휴대폰, TV,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원자력, 조선, 방위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모두 일본에 앞선다.

이런 자료들과 함께 실제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면서 “기적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한국은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빈국, 일본과는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

그런데 88 올림픽 이후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

국력에서는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일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생각해 보았다.

가이드 이야기를 들으니 일본의 북해도, 원래 아이누족이 살던 곳, 러시아의 남하 정책, 미국과 일본의 저지, 결국 일본에 합병되어 1869년에 홋카이도(북해도)라는 이름을 받았다.

1850년경, 아시아에 제국주의 물결이 흘러들어옴.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등 세계열강이 미개척지로 남아 있던 아시아 여러 국가를 식민지로 삼아 많은 부를 빼앗아갔다.

식민지, 양면의 동전 같은 점도 있다. 왜 식민지가 되는가? 치리자와 국민이 무지하고 미개해서, 자연히

힘이 없어서. 그런데 식민 통치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 인권, 산업화 등이 신장되는 계기, 근대화 계기, 아이러니

제국주의 열강들이 온 세상을 누비던 시절

이씨 조선, 주자성리학, 유교, 사농공상의 사회, 전 국민의 약 50% 정도가 노비
변변한 군대도 없던 시절, 고종과 민비라는 무능의 표상이 된 사람들의 가산제 국가
몇몇 신하들이 세상을 보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왕도 무능하고 백성은 미개하고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나라, TV 드라마나 영화가 보여 주는 조선은 판타지이다. 결코 조선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런 나라가 150년이 지난 뒤 전 세계 6위 국가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과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 미국 선교사들

고종, 미국을 좋게 봄, 선교는 안 되고 의료와 교육만 허용함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들어오면서 서양식 근대 교육 제도 도입한 미션 스쿨
전통적인 교육 체계와는 다르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교육의 대혁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아펜젤러 1858-1902(44세), (*) 미국 감리교 드루 신학교 졸업, 이후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위원회
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이듬해인 1885년 2월 3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두 달
만인 동년 4월 5일 부활절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함께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당시 27세의
청년이었던 아펜젤러는 제물포에 입항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적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읽어 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아펜젤러는 조선에 온 17번째 되는 해인 1902년 6월 목포에서 열릴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
기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중 군산 앞바다에서 예기치 않은 선박 충돌 사고로 순교하고 만다. 44세의
이른 나이에 순교한 아펜젤러는 17년간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척박한
교육의 땅인 조선에 교회와 함께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의 기적이 시작되었다. 그는 같은해 1885년 8월 3일 배재학당을 열

교훈: 아펜젤러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았다.

배재학당은 그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조선의 인재들을 배출했다. 개화기 지식인 서재필과 윤치호, 초대
대통령 이승만, 한글학자 주시경,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의학자 오궁선 등이 있으며, 문인으로는
‘물레방아’ 등으로 한국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소설가 나도향과, 시집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시인 김소월 등도 배재학당이 배출한 인재들이다.

배재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정치단체인 ‘독립협회’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독립협회는 순한
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간행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으며, 민만공동회는 민주주의와 자유 민권 사상
을 시민들 사이에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배재학당의 근대식 교육을 통해 세상에 눈을
뜬 청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배재학당은 민중 계몽운동과 민족 독립운동의 요람이자
구심점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자유 정신: 인간은 물질적, 정신적, 영적 자유를 누릴 존재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유를 주시려고

언더우드: 1859-1916(57세),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

그는 1883년 11월 장로교 목사가 되었고 1년간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았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인도 선교를 꿈꾸고 있었으나 선교잡지에 실린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이수정의 글을 보고 갈등하게 됨. 당시 조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는 미지의

땅이어서 선교사가 단 한 명도 파견되지 않았고 미국 선교부에서도 허락을 하지 않는 은둔의 땅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선교부의 허락을 받고 1884년 7월 28일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1884년에 조선은 개화파들이 일으킨 정변인 갑신정변으로 사회가 혼란하였기 때문에 1년간 일본에 머물러야 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조선기독교인으로서 마가복음을 번역한 문서선교사인 이수정(李樹廷)에게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마가복음 번역을 돕는 등 등 조선에서의 개신교 선교를 준비하였다.

부활주일인 1885년 4월 5일에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 선교사로 입국, 조선 정부에서 선교활동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교회 설립, 전도 활동, 그의 형 토머스 언더우드 타자기

그의 후손들은 조선에 남아 3대에 걸쳐 의료와 교육 선교, 연세대학교 설립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복: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미국 선교사들(의사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
무지한 백성들을 계몽하여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

그것도 미국 선교사들, 미국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양심의 자유, 정교 분리를 명시한 헌법, 우리가
누리는 거의 모든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갖춘 국가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양을 갖춘 시민들,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자원하여
이 미개한 땅 조선에 와서 목숨을 버리며 선교 활동을 펼침

이들에 의해 최초로 근대화된 지식인들이 배출됨

특히 이승만 같은 자유 민주주의 크리스천이 나옴

시간을 내서 같이 양화진을 방문해 보자. 공병호 박사의 책 소개(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두 번째 기적: 이승만(1875-1965)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함,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미국 선교사들 교육, 미국 생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유, 영혼의 자유

이승만의 자유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다.

갈5:1의 자유, 해방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귀국, 대한민국 건국, 초대 대통령

당시 6-70%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선호, 이런 시대에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인간의 기본권을
명시한 미국의 자유 헌법을 토대로 한 헌법 제정, 국가를 세움,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이것은 3500년 전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과 비슷한 기적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침공, 6.25 사변

3년간의 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승만의 말: 이 조약의 영향은 자손만대에 영구히 미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는 후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세 번째 기적: 박정희(1917-1979)

대한민국 5-9대 대통령,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우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5,000년 역사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어준 사람이다.

1961년, 4·19혁명으로 성립된 민주당정부를 무능·부패 정부로 규정하고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장악함
농업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 국가, 새마을 운동, 절대 빈곤을 해소함

그의 동상이 많지 않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동상이다.

그의 투쟁과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는 모든 번영과 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네 번째 기적: 교회

조선 땅의 원래 종교는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 샤머니즘

해방 이후 이승만을 비롯한 다수의 지식인들이 크리스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됨
건국 이후 기독교는 급격하게 성장함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의 잣대로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000만 명 기독교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 부족한 점이 있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결국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됨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배 기독교인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무지한 민족, 특히 크리스천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
 롬9-10 참조: 9:1-3, 10:1-3

교회의 사명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적들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이 땅에 살고 있다.
 놀랄 일이 아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한두 세대가 지나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림(삿2:7-8, 10).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그분의 기적들을 다 잊어버림
 그 결과 이방 민족인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음, 재판관들의 시대
 이때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방문함(11)
 천사의 말(12),
 기드온의 대답(13) 하나님의 기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다 잊었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
 족속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식으로 풀이하면: 지난 15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기적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것들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 중복 죄악 세력들에 의해 몸과 혼과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낙태, 극도의 페미니즘, 출산율 0.8명, 세계 최저, 이대로
 가다가는 죄악 이데올로기와 인구 감소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 삿21:25,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14: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15: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16: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사명: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 막16:15, 행1:8의 순서대로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 복음에는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는 권세가 있다. 세상을 뒤집어엎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직 복음으로. 그것이 사람들을 정신적, 영적 속박, 기복신앙, 사머니즘, 죄악 사상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
 믿는다고 하는 분들에게 바른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다.